

# 漢陽五百年歌와 壬辰錄의 關係와 그 意味

徐鍾文\*

## 1. 序 言

人間은 時間을 意識하는 存在이어서 體驗한 것을 時間的 秩序 속에 體系化 할 수 있다. 우리 人間은 이것을 集合하고 繼續적인 連鎖를 만들었으므로써 歷史의 地平을 여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그런데, 매우 衝擊的 歷史體驗의 場에서는 歷史의 事實性을 破壞하고 여기서 벗어 나려는 激烈한 精神的 作用이 일어 나게 된다. 즉 歷史的 事實을 解體하여 그것을 再構하는 現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現象이 言語를 몸입고 文學作品으로 具現된다 하겠다.<sup>1)</sup>

歷史的 事實이 記述될 때 歷史的 實在에 대한 認識의妥當性이 歷史記述에서 가장 重要한 準據가 될 수 있겠으나,<sup>2)</sup> 文學에서는 歷史的 實體의 解體와 再構에 作用된 想像力과 이 想像力의 動因이 매우 重要的 問題로 부각된다. 더 나아가서는 同質의 歷史的 體驗이 反復될 때, 이 것은 歷史 記述에서보다 文學 創出 쪽에서 훨씬 強度있게 再現된다는

\* 國文學科 同門(國文學專攻, 慶南大 專講)

- 1) Hegel은 그의 美學講義에서 文學에서 그 內言을 文學의으로 만드는 藝術的 想像(die künstlerliche Phantasie)에 관해 論及하면서 그것은 思想의 抽象的 普遍性과 感覺의 具象性 사이에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것은 歷史의 事實이라는 具體的 素材를 人間 精神의 抽象的 作用 속으로 끌고 들어 오는 데서 文學作品의 世界가 成立된다는 特殊한 論議를 뒷받침해 주는 말일 수 있다. (G.W.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II, Suhrkamp Verlag, 1970, S. 230-231. 參照)
- 2) E.H. Carr는 歷史 記述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資料의 限界性, 歷史理解와 認識의妥當性 문제에 관해 論議한 바 있다. (E.H. Carr: What is History?, Pelican Books, 1968, pp. 22-24. 參照)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한 具體的 事例를 우리 文學史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壬辰錄과 漢陽五百年歌가 바로 그러한 事例가 될 수 있다. 이 둘은 우리 歷史에 계속적으로 커다란 衝擊을 던졌던 倭敵의 侵略과 이들에 의한 亡國의 史實을 文學作品化한 점에서 同質的 歷史體驗 위에 뿌리 내린 作品들로 注目된다.

本考에서는 壬辰倭亂의 歷史的 衝擊이 文學作品으로 具現된 壬辰錄과 이의 擴大・深化의 繼承作品인 漢陽五百年歌의 관계<sup>3)</sup>를 다음과 같이 살피고자 한다. 우선 壬辰錄에서 歷史的 體驗이 想像力에 의해 文學作品化되면서 外侵에 대한 民族的 抵抗意志가 어떻게 形象化되고 있는가를 論議하게 된다. 이와 같은 論議는 同質的 歷史體驗이 深化되어 이것이 文學的인 傳承으로 擴大 繼承되는 문제를 考察하기 위한 基礎的인 探索에 머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同質的 歷史 體驗의 反復을 母胎로 하여 成立되었던 漢陽五百年歌에 있어서 壬辰錄의 受容과 擴大 再現의 意味를 解明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끝으로 壬辰錄이 漢陽五百年歌의 作品構造 속에서 어떻게 形態的・構造的 變貌와 變化를 일으키면서 接合되는가를 分析해 볼 것이다.

本考에서 採擇되는 資料는 다음과 같다. 漢陽五百年歌<sup>4)</sup>의 경우에는 世昌書館本 및 이의 底本으로 보이는 韓南禮本<sup>5)</sup>으로 한다. 壬辰錄의 경

3) 壬辰錄과 漢陽五百年歌를 같은 資料로 삼은 論文은 있으나(•趙東一: 壬辰錄에 나타난 金德齡, 李在秀博士還暦紀念論文集, 1972. •林哲鏞: 壬辰錄群研究, 延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이 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論議한 作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漢陽歌類의 名稱에는 漢陽歌, 漢陽風物歌, 漢陽太平歌, 李朝五百年史話, 漢陽五百年歌, 한양가사 등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으나 그 내용상 漢陽의 都城, 風物, 文物을敍述한 鄉土 漢陽歌와 朝鮮朝의 歷史를 敍述한 王朝 漢陽歌로 大別된다. (崔康賢: 漢陽歌 研究, 高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4, p. 17. 參照) 本考에서는 朝鮮朝의 歷史를 敍述한 장편가사체의 作品名을 漢陽五百年歌로 使用한다.

5) 筆者が入手한 韓南禮本 한양가사는, 세로 19cm×가로 20cm, 44枚, 兩面 筆寫한 國漢文 筆寫本이다. 所藏者인 韓南禮女史의 말에 따르면 作成年代는 70년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世昌書館本과 거의一致한다.

우에는 漢陽五百年歌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推定되는 여러 異本을 資料로 取擇한다. 漢陽五百年歌의 資料를 限制하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漢陽五百年歌와 壬辰錄의 關係를 각 異本마다 다루자면 각 異本 사이의 影響關係는 두 본 사이의 二項組合만치나 많을 것이어서 그 作業量이 매우 龐大하게 된다. 따라서 本考의 作業量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째, 世昌書館本은 印刷되어 널리 읽혀졌다는 점에서 다른 異本에 비할 수 없이 많은 讀者들을 확보했으므로 本考에서 提起하고 있는 歷史體驗의 文學史的 傳承 問題 解明에 適切한 資料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세째, 世昌書館本은 作家意識을 鮮明하게 드러내고 있는 司空氏本을 底本으로 했기에<sup>6)</sup> 作家의 觀點이나 叙述態度를 抽出하는데 있어서 資料的 缺陷을 내보이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本考의 限界는 이렇다. 漢陽五百年歌의 모든 異本과 壬辰錄의 모든 異本 간의 影響關係를 追跡하지 못하기 때문에, 論述의 性格이 概括的 인데서 벗어 날 수 없게 된다. 이는 앞서의 여러 理由 때문에 不可避한 限界에 속한다. 後考에서 이 限界를 허물고자 期約할 뿐이다.

## 2. 歷史的 體驗과 想像의 克服의 文學的 形象化

衝擊의인 歷史的 體驗과 事實은 史實을 素材로 하는 文學作品을 創出시킨다.<sup>7)</sup> 우리 文學史에서 이러한 具體의인 事例를 찾아 내기는 어렵지 않다. 壬辰倭亂이 우리 民族에게 준 衝擊은 壬辰錄과 南胤傳 등을 創出시켰고, 丙子胡亂은 朴氏夫人傳과 林慶榮傳을 創出케 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衝擊波가 戰爭과 英雄의 이야기인 軍談小說類를 大量으로

6) 朴晨義校註: 農家月令歌·漢陽歌, 民衆書館, 1974, p. 18. 參照.

7) A. Fleishman은 歷史를 素材로 하는 文學은 特定한 歷史的 對象에 대한 想像의 活動의 所產이며 歷史의 想像의 描出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Avrom Fleishman: The English Historical Novel, The Johns Hopkins press, 1972, p. 4.)

生產하게 간접적으로 刺戟하는 要因이 되었음은 널리 認定된 일이다. 壬辰錄의 異本은 여러 가지가 전해 오는데,<sup>8)</sup> 歷史的 事實을 充實하게 보고하는 内容으로 된 系列과 虛構的인 再編을 일으킨 혼적을 보이는 系列로 나눌 수 있다.<sup>9)</sup> 두 系列 사이의 先後關係를 간단히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史實의 虛構的인 再編은 歷史的 體驗의 口傳物이나 史實의 記錄物을 根據로 하여 이루어졌으리라는 推定은 可能하다. 壬辰錄의 여러 異本이 傳해져서 日帝때에 禁書로 受難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十餘種의 異本이 學界에 소개되고 있음<sup>10)</sup>은 이 作品이 매우 널리 읽힌, 人氣 있는 讀書物의 하나임을 證明해 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壬辰錄의 異本에서 史實을 虛構化하고 있음은 무슨 까닭인가? 또 그러한 虚構的 史實이 즐겨 읽힌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

壬辰倭亂은 歷史的 事實로 記憶하기엔 지나치게 참혹한 일이므로 過去化된 歷史的 體驗 自體를 解體化해 버리고자 하는 강렬한 衝動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热望은 史實을 虛構化하여 새로운 世界를創造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새롭게創造된 世界는 過去에 일어났던 일을 順次的으로 羅列하는데에 충실하지 않았으나, 想像的인 歷史 經驗을 하도록 짜여진다. 예컨대, 金應瑞와 姜弘立의 倭國 征伐이 壬辰錄에 나

8) 壬辰錄의 異本에 관한 研究는 다음과 같은 論文이 代表的인 것이다.

蘇在英：「壬辰錄」研究，崇田語文學，1972.

蘇在英：「壬辰錄」論攷，檀國大 國文學論集 第5,6合輯，1972.

林哲鏞：「壬辰錄」群 研究，延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77.

本考에서 記述되는 壬辰錄의 異本의 差異에 관해서는 위의 論文들의 도움에 크게 힘입고 있음을 밝힌다.

9) 대부분의 壬辰錄 異本에는 史實이 虛構的으로 再編되어 있으나, 金東旭本 壬辰倭亂錄(金華寺太平宴夢遊錄과 合本)은 史實을 충실히 記錄하여 虛構的 再編의 혼적을 보이지 않은 異本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機南大本 히동문전록 중 壬辰倭亂 부분도 歷史的 事實을 충실히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金東旭 교수는 壬辰錄의 異本 十餘種을 소개한 바 있다. 소개된 古小說 중 異本이 十種 이상 되는 것은 아홉 작품에 지나지 않았다. (金東旭：庶民文學의 擙頭，〈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14, 探究堂，1975〉 pp. 382-383. 參照。)

타나는데, 이는 丙子胡亂 前의 史實을 借用한 것이다. 대부분의 異本에서 이러한 借用이 確認되는데<sup>11)</sup> 金應瑞와 姜弘立은 作品 内에서 상당한 機能을 수행하는 人物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事實은 史實을 誤認한 結果로 나타난 誤謬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릴 순 없다. 오히려 意圖的인 錯覺的牽引作用에 의한 借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壬辰倭亂이 던진 歷史的衝擊과 丙子胡亂이 던진 歷史的衝擊을 複合的으로 응수하여 想像的 經驗을 통해 克服하려면 對外出征의 歷史的 體驗을 再生시켜 이를 變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金德齡의 浮刻,<sup>12)</sup> 李如松의 受辱, 泗溟堂의 活躍등에서 우리는 外侵에 대한 全民族的 應戰意志의 形象化를 넉넉히 찾아 볼 수 있다.<sup>13)</sup>

요컨대, 壬辰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이러한 現象은 壬辰錄이 단순히 歷史的 體驗을 再構하는데 머물지 않고, 史實을 再經驗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過去의인 것을 克服할 수 있게 하기 위해 虛構的 再編을 피한 作家의 產物이란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虛構的으로 再編되어 열리는 새로운 次元의 歷史의 場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現在의인 것으로 생생하게 살아 나오게 된다.<sup>14)</sup> 또 이것은 과거적인 事實의 堆積에 뿌리 내렸지만 現在의 熱望을 향해 일을 내어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과거적인 것을 비교삼아서 想像의 世界를 열매맺는 일이다.

民族的 感情의 웅어리를 歷史 虛構物(historical fiction)에서 찾는 西

11) 金應瑞와 姜弘立의 倭國征伐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異本은 高大本 漢文筆寫本과 橋寧徵本 國文筆寫本 등이고 대부분의 異本은 金應瑞와 姜弘立의 倭國征伐 부분을 保有하고 있다.

12) 金德齡이 民衆的・民族的 英雄으로 浮刻되고 있음을 이미 아래 論文에서 注目된 바 있다. (趙東一: 앞의 論文 參照)

13) 이와 같은 論議는 本考의 論旨 展開에 破行을 가져 올 것이므로 자세한 論述은 後考를 따로 마련해 開陳할 필요가 있다.

14) G. Lukács는 이 점에 관해 매우 示唆的인 言及을 하고 있다. 歷史小說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창한 역사적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마음에 떠올리는 사람들의 詩的 覺醒 문제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Georg Lukács: The Historical Novel, Penguin Books, 1976, p. 44. 參照)

洋의 한 研究家の 눈<sup>15)</sup>을 빌리지 않더라도, 壬辰錄은 壬辰倭亂에 대한 民族的 應戰意識과 抵抗意志의 所產이라는 점을 명백히 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民族的 應戰意識과 抵抗意志는 同一勢力에 의해 外侵이 反復的 으로 行될 때 더욱 強化되고 이에 따라 被侵의 歷史的 體驗을 克服하고자 하는 热望도 強烈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歷史的 體驗의 深化와 이의 文學的 傳承과 擴大 現象을 漢陽五百年歌와 壬辰錄의 影響關係에서 目睹할 수 있다. 이것을 살펴 보는 일이 다음 차례의 課題だ.

### 3. 歷史的 體驗의 深化와 이의 文學的 傳承과 擴大

日帝에 의해서 朝鮮朝가 崩壞되고 우리 民族이 亡國의 悲運을 體驗하게 되자, 壬辰倭亂을 일으킨 同一外侵勢力이 再次 우리에게 준 歷史的 體驗은 더욱 深化되고 그 衝擊은 加重되어 갔다. 이러한 歷史的 體驗은 文學作品으로 具現되기에 이른다. 漢陽五百年歌는 壬辰錄과 함께 倭敵의 侵略行爲와 日帝의 朝鮮朝强占 때문에 우리 民族이 겪어야 했던 歷史的 衝擊을 作品化한 것이다. 漢陽五百年歌에서는 深化된 歷史的 體驗을 효과적으로 表出시키기 위해서 壬辰錄을 資料로 借用하여 亡國의 痛恨을 歷史的 回顧에 의해 더욱 치렬하게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當代의 現實을 克服할 수 있는 內面的 渴求를 充足시키고 있음은 매우 注目되는 일이다.

漢陽五百年歌에서 壬辰倭亂의 記述部分에 壬辰錄이 借用되면서 이 부분은 全體作品構造에서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게 된다. 漢陽五百年歌에서 壬辰錄의 借用部分이 全體敘述量의 1/3에 가깝다는 점이 이것을 證據한다. 漢陽五百年歌는 朝鮮朝의 滅亡 후에 成立된 것이기에 壬辰倭亂의 敘述部分에 先行하는 壬辰錄의 여러 異本이 두루 借用되었으리라

15) Avrom Fleishman: 앞의 책, pp. 27-28. 參照

는 점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 證據를 簡略히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明의 李如松의 出兵과 여러 가지 어려운 要求 提示는 壬辰錄의 모든 異本에 나타나는 바, 이것이 漢陽五百年歌에도 그대로 借用된다. 또 神兵이나 道士가 나타나 倭兵을 격퇴하는 것은 대부분의 壬辰錄의 異本에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漢陽五百年歌에 借用된다. 뿐만 아니라, 倭國에 入國한 泗溟堂의 神異로운 行蹟과 倭王의 降服하는 부분도 대부분의 壬辰錄의 異本에 나와 있는 것으로 漱陽五百年歌에 그대로 借用되고 있다. 泗溟堂의 異蹟이 紹介되어 있지 않은 壬辰錄의 異本<sup>16)</sup>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平壤妓生 花月과 金德齡의 合心으로 倭將을 暗殺하는 대목이나 明으로 請兵 가는 우리 使臣이 仙女의 도움으로 李如松의 畫像을 얻어 가는 대목도 漱陽五百年歌에 그대로 借用된다. 漱陽五百年歌가 壬辰錄의 모든 異本에 두루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몇몇 異本에만 나타나는 特殊한 部分까지 다 借用했다는 事實은 漱陽五百年歌가 壬辰錄의 모든 異本의 影響下에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sup>17)</sup>

上述한 바와 같이 漱陽五百年歌가 壬辰錄을 傳承하여 이를 擴大繼承한 作品이란 점은 단순히 資料의 借用이란 면에서만 注目될 일은 아니다. 壬辰錄을 전체작품의 構造 속에서 比例的으로 縮小시키지 않고, 全體 構造의 均衡을 깨뜨리면서 까지 그대로 受容했다는 점을 重視해야 한다. 漱陽五百年歌의 作家는 作品內에서 매우 客觀的이고도 批判的인 觀點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句節들이 바로 그런 觀點을 드러내 보인다.

#### 효종대왕 가진마음

16) 權寧徵本 圖文筆寫本 임진녹과 高大本 漱文筆寫本 壬辰錄과 李明善本 漱文筆寫本 壬辰錄에는 泗溟堂의 倭國 入國과 神異한 行蹟이 나타나 있지 않다.

17) 壬辰錄의 몇몇 異本(註 16) 參照>에서만 나타나는 대목이 漱陽五百年歌에 借用되었다고 해서, 漱陽五百年歌가 이들 몇몇 異本의 影響을 集中的으로 받았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壬辰錄의 몇몇 異本(註 16) 參照>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異本의 部分도 漱陽五百年歌에 借用되기 때문이다.

연태자와 달을소나 북벌도 신기찬코  
 그때에 북벌트면 큰일나고 말았으리  
 (世昌書館本 漢陽五百年歌 p. 85. 이하 世昌本 漢歌라 칭함)

상감님이 이 나라를 일본이 와서치니  
 상감님이 먼저쳐서 옛 말삼 그르던가  
 망할줄 모르고시 내 나라를 망케하니  
 한 같같이 조심없이 어이그리 애달픈고      (世昌本 漢歌 p. 116.)

위의 引用文에서 作家가 客觀的觀點과 批判的 眼目을 보인 점을 미루어 볼 때, 漢陽五百年歌에서 全體作品構造의 均衡을 破壞할 정도로 壬辰錄을 그대로 借用하고 있다는 것은 作家의 意圖的措處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은 漢陽五百年歌에서 叙述量의 部分의 膨脹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살핀 다음에 論議하고자 한다.

漢陽五百年歌에는 全體敘述量의 部分의 比例 均衡을 깨뜨리는 部分의 膨脹이 끽꼿에 일어나고 있는 바, 상당한 膨脹이 일어난 部分을 찾아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朝鮮朝의 創業과 太祖와 太宗 사이의 葛藤(12/119)
- ② 世祖의 登場과 死六臣의 抵抗 波動(17/119)
- ③ 宣祖의 登場과 壬辰倭亂(37/119)
- ④ 丙子胡亂과 北伐 計劃(5/119)
- ⑤ 穩宗의 登場과 張嬉嬪事件(6/119)
- ⑥ 思悼世子와 正宗의 孝心(4/119)
- ⑦ 大院君의 失政과 亡國(16/119)<sup>18)</sup>

18) 팔호 안의 分數는 世昌書館本의 總面數에 대한 해당부분의 面數의 比率을 나타낸다.

19) 朝鮮朝의 創業 部分에는 鄭夢周의 血痕說話와 無學大師와 鄭道傳 사이의 都城擇地論爭說話가 들어 있고, 世祖의 登場과 端宗의 죽음 및 死六臣의 抗拒에는 文宗妃의 現夢과 驚驗에 관한 說話가 들어 있으며, 壬辰倭亂 記述 部分에는 헤아릴 수 없는 說話의 破片이 插入 또는 變容되어 溶解되고 있다. 이밖에 朝鮮朝의 滅亡 部分에는 閔泳煥의 自決 후의 血竹生起說話 등을 들 수 있겠다.

위에서 部分的 膨脹이 일어난 곳을 살펴 보면, 衝擊的 歷史的 事件이 일어난 時期를 叙述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膨脹이 일어난 部分에는 說話的 要素가 加味되어 있는 경우가 혼한데,<sup>19)</sup> 이는 이들 部分이 量的 인 膨脹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質的인 變化도 함께 겪은 것을 나타낸다 하겠다.

여기서 다시 吟味하고 넘어야 할 問題는 우리 民族이 朝鮮朝에서 겪은 兩大戰亂을 叙述함에 있어서 壬辰倭亂 叙述部分은 丙子胡亂 記述部分보다 엄청나게 叙述量이 增加되어 있다는 점이다. 壬辰倭亂이 丙子胡亂보다 外侵의 規模나 被害가 훨씬 더 커서 우리 民族에게 준 衝擊이 더 強烈하기 때문에 叙述量이 보다 더 增加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丙子胡亂 때는 國王이 降服했다는 점에서 壬辰倭亂보다 더 衝擊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壬辰倭亂 記述部分에서 全體的으로 보아서도 가장 많이 叙述量이 불어 났으며, 같은 性質을 지닌 丙子胡亂 記述部分보다 叙述量이 더 增加했는가. 이점은 壬辰倭亂 叙述部分이 丙子胡亂 叙述部分의 性格과는 달리 虛構的으로 再編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함께 論議해야 할 것이다.

傳承에 있어서 어떤 明白한 目的을 成就하기 위해 資料提供者는 傳達 資料를 意圖的으로 誤謬化시킨다<sup>20)</sup>는 一般理論을 굳이 빌릴 필요 없이 도 壬辰倭亂 叙述部分의 叙述量의 膨脹과 叙述 性格의 變化는 作家의 意圖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漢陽五百年歌의 作家가 壬辰倭亂 叙述部分에 壬辰錄을 借用하여 全體的인 叙述量의 比例的 均衡을 깨뜨리는데는, 作家의 客觀的 叙述態度를 흐트리게 하는 激發的 인動機가 있었을 것이다. 作家는 “가사짓난 이사람도 탕쾌하야 가면살림 부영에 걸렸거늘 농우팔아 원납하니 그해농사 폐농했소”(世昌 漢歌 p. 103)라고 大院君에 대한 個人的 感情을 表明하면서도 高宗이 大院君을 臨終

20) Jan Vansina: Oral Tradition, A Study in Historical Mythology, Penguin Books, 1965, p. 112. 參照)

하지 않았던 行爲를 批判<sup>21)</sup>할 만치 客觀的이고도 冷靜한 眼目을 지닌 것으로 判斷된다. 그리고, 壬辰錄을 借用하면서 明白한 史的 誤謬라 생각되는 部分을 削除<sup>22)</sup>할 만큼 合理的 觀點을 堅持했던 作家가 洗溟堂이 倭國에 들어가서 超人間的 能力과 神異한 行蹟으로 倭王의 降服을 받아 산 사람의 가죽을 연년이 삼백 장식 朝貢하도록 要求하는 부분을 그대로 借用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關雲長과 神兵의 援助, 明 請兵 때의 老嫗의 助力, 金德齡과 花月의 倭將 謀殺, 李如松과 金德齡의 倭兵擊破 李如松의 斷脈과 山神에 의한 逢辱 등은 說話的 處理로 非現實的 世界를 創造하므로 可能해진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借用되어 있다. 이들 世界의 非現實性과 그 存立을 可能케 하는 非合理的 發想은 作家의 合理的인 觀點과는 어긋나는 일인데도 作家가 이 부분을 그대로 借用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解答은 쉽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說明으로 代置되리라 생각된다. 作家의 客觀的 叙述態度와 冷靜한 眼目을 허물어드리는 부분은 대체로 歷史的 衝擊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부분은 叙述量의 膨脹이 일어나고 叙述性格도 變化한다는 점은 이미 살펴 보았다. 특히 作家는 壬辰倭亂을 記述하는 부분에서 亡國의 悲憤을 解消하려는 強한 慾求를 느껴 壬辰倭亂을 우리 民族이 勝戰한 것으로 虛構化시킨 壬辰錄을 採擇하였을 것이다. 壬辰錄 全體의 性格이 作家의 眼目을 흐트리는 것이 있으나, 亡國이라는 當代的 現實에 激發된 作家는 非現實的인 世界에서 非合理的 方式으로라도 이를 克服하고자 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當代的 現實에 대한 作家의 悲痛한 心情이

21)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그점은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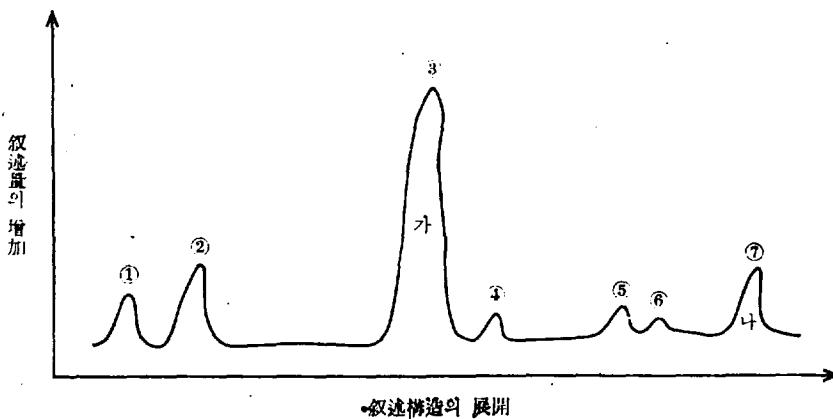
만승천자 되기전에 부모봉양 하시거던 역산에 발을가라 어찌하여 우리상감  
증전말삼 드러서고 어찌아니 보셨으며 어마님 운명할제 대원군 임종시에  
조가신하 말만듣고 어찌아니 보셨난고(世昌本 漢歌 p.112).

22) 壬辰錄의 여러 異本에는 金應璣와 姜弘立의 倭國 征伐 부분이 들어 있다.  
이 부분이 漢陽五百年歌에 借用되지 않았는데, 이는 明白한 史實의 誤謬라  
생각한 作家가 削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부분은 說話的인 處理에 의해  
虛構化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史實과 어긋나 있으므로 削除해 버린 것이라  
생각된다.

合理的인 觀點과 客觀的 敘述態度를 屈折시켜 想像力의 收斂作用에 의  
해 壬辰倭亂 부분의 史實性을 分解하고 壬辰錄을 受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論議는 다음에 계속될 것이다.

#### 4. 漢陽五百年歌에 있어서 壬辰錄의 受容과 擴大再現의 意味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漢陽五百年歌는 壬辰錄을 中心軸으로 하여  
朝鮮朝의 歷史를 回顧하면서 朝鮮朝의 滅亡을 悲感하게 노래한 것이다.  
漢陽五百年歌에는 作家가 衝擊的으로 받아 들이는 歷史的 事實이 相對  
的으로 擴張되어 敘述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指摘한 바 있다. 이러한  
現象이 壬辰倭亂의 敘述部分에서 더욱 異狀的으로 擴大되고, 이와 함께  
大院君의 登場과 亡國을 敘述하는 곳도 크게 擴大되고 있음을 注目해야  
할 사실이다. 이를 간단한 圖表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圖表에 붙인 番號는 앞장에서 부분적 팽창을 보인 곳에 붙인 번호임)

위 圖表에서 “가”부분은 漢陽五百年歌에서 壬辰倭亂의 敘述量이 全體  
敘述量에 차지하는 比重이 얼마나 偏重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

다. “나”부분은 “가”부분보다는 크지 않지만, 漢陽五百年歌의 作家가 大院君의 失政과 이의 結果인 亡國을 크게 強調하는 叙述態度에 따라 叙述量의 增大가 두드러지게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膨脹이 다른 부분보다 크게 擴張되어 있다는 점도 注目되는 바 있겠지만, 특히 이 둘의 叙述性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매우 興味 있는 問題를 提起한다.

앞서 檢討한 바와 같이 “가”부분은 壬辰錄을 借用한 곳이다. 壬辰錄이 歷史的 事實을 虛構化한 作品임은 이미 알려진 바다. 이에 반하여 大院君의 失政과 亡國을 叙述하는 “나”부분은 漢陽五百年歌의 대부분의 다른 부분과 같이 史實을 정확하게 傳達하는 方式으로 叙述되어 있다. 이 두 부분의 叙述內容의 性格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래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아)

사명당의 거동보소

애왕다려 하난말이 어진덕을 닥근고로  
우리나라 임금님은 하나님이 감동하야

강원도 낙산사에 삼년에도 하나나고  
생불을 점지하니 오년에도 하나난다

다시 한번 생불오면 삼백장 인피벗거  
너의나라 멸망한다 넌년이 조공하라

인피를 벗긴대도 산사람 벗겨오라  
죽은사람 가죽말고

(世昌本 漢歌 p. 78.)

야)

만고역적 윤택영이 임군의 옥쇄뺏아  
부원군 명색되고 일본통감 갖다주고

저의빚을 갖다주고 나라일은 어찌되나  
처참맞당 이놈이오 삼천리 좋은강산

금포단에 도장찍어 흥덕군 제방안에

문서체로 남을주고 적막히 흘로앉아

한같이 연제든지 세월없이 다지내니

진감이 무엇인가 백수군왕 가련하다

(世昌本 漢歌 p. 114.)

아) 부분은 壬辰倭亂을 마무리하는 過程을 叙述하고 있는 곳으로 泗溟堂이倭王의 降服을 받고 侵略國에게 가치없는懲治를 내리는 대목이다.倭王의 降服을 받아 내기 위하여 泗溟堂은 八萬大藏經文 말달려 의우기, 물 위에서 쇠방석 타기, 불에 달군 구리집 안에 서리 끼우기, 불에 달군 쇠말 식히기 위해 洪水나게 하기 등의 神異로운 活躍을 벌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内容은 慘酷한 侵略行爲를 想像 속에서 膨脹함으로써 侵略에 의한 現實的 被害意識을 克服하려는 意圖에 따라 虛構的 創作이 이뤄진 結果다. 야) 부분은 大院君의 失政과 朝鮮朝의 滅亡을 憤怒와 悲感을 섞어 가며 叙述하고 있으나, 事實을 虛構的으로 再編하지는 않고 있다.<sup>23)</sup> 그러면 이러한 差異는 무엇을 意味하고 있는가?

첫째로 생각해 봐야 될 일은 壬辰倭亂과 朝鮮朝의 滅亡을 叙述하고 있는 부분이 全體的으로 보아 지나치게 擴大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왜 이 두 부분이 이렇게 膨脹되어 있는가? 外侵은 가장 심각한 歷史的衝擊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만 있겠는가? 그렇다면 丙子胡亂 부분은 왜 이처럼 膨脹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問題는 다음과 같은 점을 認識할 때야 풀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壬辰倭亂이 丙子胡亂과 함께 매우 심각한 歷史的衝擊을 일으킨 外侵이었지만, 壬辰倭亂을 慾起한 力勢에 의해 다시 亡國되었다는 歷史의 反復的 體驗이 그 衝擊을 深化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叙述量의 增加 現象이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壬辰倭亂과 亡國은 同質의 歷史的 體驗을 深化시킨 歷史의 軸이었으므로, 叙述量의 增加는 이와 같은 歷史 體驗의 軸에 달린 바퀴

23) 朝鮮朝 滅亡 부분에는 閑泳煥의 自決에 따른 血竹生起說話가 들어 있다. 이는 作家가 疑心할 수 없는 信憑性을 지니고 流布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作家는 事實로 받아 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처럼 相乘의 으로 加速化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壬辰倭亂을 叙述하는 부분은 史實이 解體되어 虛構的인 再編이 이뤄져 있고, 朝鮮朝의 滅亡을 叙述하는 곳은 史實을 충실하게 叙述하고 있다는 점을 注目해 볼 필요가 있다. 壬辰倭亂 叙述부분에서 일어난 虛構的 再編은 壬辰錄의 借用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史實을 정확히 傳達하고 있는 漢陽五百年歌의 全般的인 性格에서 壬辰倭亂 대목만이 크게 遷脫하고 있는 理由는 없겠는가? 또 同質의 歷史的 體驗이 反復되면서 더욱 深化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亡國을 叙述하는 부분에서는 虛構的 再編을 통해 現實的 狀況을 想像의 으로 克服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問題는 보다 深層의 인 解釋을 통해서 解明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漢陽五百年歌의 作家는 亡國이라는 當代의 歷史 狀況을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壬辰倭亂을 일으킨 主體에 의해 이뤄졌다 는 事實은 더욱 痛嘆할 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實現된 歷史的 狀況을 否認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時間의 으로 過去 속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壬辰倭亂을想到할 때, 否認할 수 없는 當代의 現實은 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견디기 어려웠던 作家의 心情은 史實을 충실하게 叙述해 왔던 一貫된 叙述態度를 허물어 버리고 壬辰倭亂 부분에 虛構的 叙事의인 壬辰錄을正確한 史實과 代置시켜 버렸던 것 같다. 否定할 수 없는 現實을 도저히 首肯할 수 없었던 作家는 現實에 대해 憤怒하게 만든 主體를 想像의 世界 속에서나마 懲治하고자 했던 것이며, 이러한 慾求가 壬辰錄을 借用해 하여 外侵勢力を 想像의 世界 속에서 無力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아무리 그렇지만, 對面하고 있는 當代의 現實까지 虛構化하여, 否認하고 싶은 歷史的 狀況을 解體하는 世界를 創造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當代의 狀況의 現實性을 破壞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造作은 不可能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로, 漢陽五百年歌의 全體의 性格이 壬辰倭亂 부분에 借用된 壬辰

錄의 虛構的 性格을 감추어 버린다는 점을 注目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漢陽五百年歌의 全體的인 性格이 史實을 正確히 傳達하는 歷史記錄物의in 特徵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借用된 壬辰錄의 虚構的인 内容은 誠實된 史實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이야기다.<sup>24)</sup> 이는 作家의 意圖와 相關敘이도, 讀者가 漢陽五百年歌를 讀破할 때나 이 作品이 朗讀되는 것을 들을 때 일어나는 效果다. 이러한 虚構物이 真實된 歷史 記錄物로 錯覺되는 순간, 亡國을 惹起시킨 勢力에 대한 心理的 報復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否認할 수 없는 當代的 歷史狀況을 克服할 수 있는 自信感과 自尊心을 強化시키는 結果를 가져 오는 것이다. 歷史的 事實을 解體하여 이를 虚構化시키고, 또 이렇게 創造된 世界를 歷史記錄物 속에 끼어 넣음으로써 歷史 克服의 힘을 불러 일으키는 일은 文學의 本質과 機能에 힘입어 可能해 질 수 있다. 이러한 問題는 研究對象을 달리하면서 계속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5. 壬辰錄이 漢陽五百年歌의 作品構造속에 連接되는 樣相

漢陽五百年歌 중에서 壬辰倭亂 叙述部分은 壬辰錄을 借用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밝혀졌다. 壬辰錄을 借用하면서 어떤 特定한 異本을 底本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 異本을 두루 參考하였다는 점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壬辰倭亂을 叙述하고 있는 곳은 漢陽五百年歌의 다른 부분과 叙述性格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 보았으며, 그렇게 된 까닭과 그것의 機能에 관해서도 알아 본 셈이다. 여기서는 원래의 壬辰錄의 形態와 漢陽五百年歌에 借用된 形態와의 差異에 관해서 論議하고

24) 이럴 경우 “事實에 더 충실하기 보다 知的으로 보다 더 잘 받아 들이기 만 드는 어떤 效果” (Avrom Fleishman: 앞의 책, p. 10. 參照)가 나타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 한다.

壬辰錄이 散文 叙事體의 形態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漢陽五百年歌는 律文 叙事體의 形態를 지니고 있다. 壬辰錄이 漢陽五百年歌에 借用되면 서 壬辰錄의 散文的 形態는 漢陽五百年歌의 律文的 形態에 이끌려 律文化되었다고 보여진다. 筆者가入手한 漱陽五百年歌類의 筆寫本으로 韓南禮本 한양가스에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곳이 나타나 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그것을 證據하는 곳이다.

宣祖大王登國한이 그王妣는 뇌시던가  
나쥬朴氏부인이요

국운은 참치하나 선치난못하시나  
忠臣烈士:국성하다 白成은무소트라

年年이 등풍히야 국티민안죠흔시고  
근로민민보국함이 시월리유슈로다.

#### ○ 임진녹

잇썩기어는서 고님진연수월리라국운이쇠진한지 뵈성이불횡튼지 날이가나는구나  
…中略…다시비리호난말리三百名軍사나와수조리로소오리다그리호라 허락호야동  
니음녀죠량암찌죠흔집을지어노코 三百名왜스드리거개와시빈을선이그후로지금까  
지동너왜관거개로다○○○

○天地間無경키는 戊申年二月달리  
歲月았기 죠잇는가 宣祖大王승하하여

春秋가열마신가  
五十七리분명하다<sup>25)</sup>

위의 부분은 매우 注目할 만한 資料的 價值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筆寫者가 漱陽五百年歌(資料에는 한양가스라 表題되어 있음)을 轉寫할 때 壬辰倭亂을 叙述하는 부분이 壬辰錄의 借用이란 점을 意識하고 이 부분을 다른 부분과 區分하기 위해서 形態上 特異한 編輯을 했다는 점

25) 韓南禮本 : 한양가스, 33-34面, 62-63面

을 留意해 봐야 한다. 이 부분을 前後한 부분은 가사체를 表記할 때의 典型的 排列方式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부분에 와서는 小說類를 轉寫할 때처럼 내리달아 붙여 쓰고 있는 점을 注目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差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앞뒤부분과 달리 없이 3, 4音節 혹은 4, 4音節의 音量을 가진 2音步의 단위로 이뤄진 4音步로一行을 構成하고 있어 典型的인 가사의 律格構造를 同一하지 않은 形態로 轉寫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漢陽五百年歌에서 壬辰倭亂을 叙述하는 부분이 壬辰錄의 借用이라는 점을 明確히 하는 同時에, 壬辰錄이 漢陽五百年歌의 作品構造 속에 外形的으로는 同質化되어 있으나 漢陽五百年歌의 全體的 性質에 同化할 수 없음을 讀者나 轉寫者가 끊임없이 認識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壬辰錄은 원래 散文으로 된 叙事物인데 律文으로 된 漢陽五百年歌에 끼어 들어 오게 됨으로 形態의으로 律文化되어 漱陽五百年歌의 律格的 秩序 속에 配置되었고 그 결과 散文으로 된 叙事物의 存在樣態로 보다 더 잘 기억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形態의으로 律文化됨으로써 이 부분이 漱陽五百年歌의 作品構造 속에 外形의으로 同化된 것 같아 보이나 叙述 性格의 相異性까지 同化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漱陽五百年歌의 全體의 叙述 性格의 影響을 받아 借用된 壬辰錄의 初頭部分과 末尾部分이 漱陽五百年歌의 叙述方式으로 轉換되고 있음은 매우 興味로운 現象이다. 異本에 따라 樣相이 다르긴 하지만 壬辰錄의 初頭部分에는 壬辰倭亂을 象示하는 여러 가지의 徵兆가 나타나 있다. 宣祖의 꿈에(異本에 따라서는 仁祖의 꿈이라는 誤認도 보인다) 倭敵의 侵入이 있을 것이라는 象示를 '倭'字의 破字 解夢에 의해

26) 律文이 散文보다 記憶에 훨씬 더 寄與한다는 機能上의 論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論議도 그 많은 論議 중의 하나다.

Poetry, for example, tends to be more memorable than prose and tends to support a great extraordinariness of language. (J. V. Cunningham: Tradition and Poetic Structure, University of Denver Press, 1960, p. 18).

깨닫도록 만드는 夢中徵兆가 나타나든지, 關雲長의 現夢으로 倭敵의 侵入 및 倭間諜 投入의豫示가 있게 된다.<sup>27)</sup> 이러한 初頭部分은 衝擊的 歷史的 事實을 虛構化하는 叙事物의 展開上 필요한 事件의 設定이라 보여진다.

이 初頭部分이 漢陽五百年歌에 移入될 때 虚構的 性格이 去勢되고 歷史記錄物의 性格을 되찾고 있는 것은 作家의 단순한 忘却으로 일어난 現象으로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러한 虚構的 性格이 去勢되지 않은 채 그대로 移入된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現象을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해서 壬辰錄의 몇몇 異本의 初頭部分과 漢陽五百年歌의 初頭部分을 比較해 보기로 한다.

ㄱ)

신조대왕 등극하니 그왕비는 누시던고  
라주박씨 부인이오

부원군은 누시든고 둘째왕비 누시던고  
라주사람 용순이라 연안김씨 부인이오

부원군은 누시든고 국운은 침체하나  
연안사람 제남이라 충신열사 극성하다

선치는 못하시되 이때가 어느땐가  
백성은 무사하니 임진년 三월이라

국운이 쇠진한가 난리가 나난구나  
백성이 불행던가 난리는 어대난나

일본서 나온난리

삼조팔역 다나온다.

(世昌本 漢歌 p. 42.)

27) 壬亂 前의 여러 가지 怪變과 直祖 夢中の倭敵 侵入豫示는 國立圖書館本 國文筆寫 남진녹, 金根洙編 國文筆寫 흑농일기, 金東旭本 國文筆寫 임진녹, 朴魯春本 國文筆寫 임진녹, 延大本 國文筆寫 임진녹, 李明善本 國文筆寫 黑龍錄에 나타난다. 關雲長의 現夢으로倭敵의 侵入 및倭間諜의 投入을豫示하는 異本은 高大本 漢文筆寫壬辰錄, 檣寧徹本 國文筆寫 임진록, 李明善本 漢文筆寫壬辰錄등이다(蘇在英: 앞의 첫번 째 논문, p. 138. 參照). 林哲鎭: 앞의 논문, p. 64. 參照).

ㄴ)

대명 승정 임진년 가을 칠월 보름날 선조대왕의 꿈에 한 장군이 칼을 침고 갑옷을 입은 채 남쪽으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며 크게 외쳤다. “임금님께서는 주무시 나이까 주무시지 않으시 나이까” “누군가” “한중 관운장이 옵니다. 내일 임금님의 나라에 큰 난리가 있을 것이옵니다.”<sup>28)</sup>

ㄷ)

작설이라잇 써 난임진연추칠월기망일에 조선이 온조티왕몽중이 훈중군이 철갑을 입고 남덕회로드러와문을두더리며가로터왕온 조시 난잇가승이 담활뉘가집피무려나야 그중군이 옛조오터소중은 술국시결티호나라선봉중관운중일년이 명일오시의 훈중놈 이죽농을끼고남덕회로드러울거신이이...<sup>29)</sup>

ㄹ)

잇서는 터명국 순종황제 말년이요 조선 선조티왕 십일년 시기라 국운이 잠시 불행한데 그려 헛먼지 각처에 이상한 날이 비일비자지 터강 거북호전터 합경도 갑산지방에 요괴한 귀신이 작난한데...<sup>30)</sup>

ㅁ)

작설 이때 조선대왕게암서 한 몽사를 웃엇시니 엇더한 게집이 지장을 자루에 느느 이고 완연이 드려와 나려 노커날 상이 놀내 개다르신니 일장춘몽이 라...<sup>31)</sup>

위에서 몇몇 壬辰錄의 初頭部分인 ㄴ), ㄷ), ㄹ), ㅁ)과 漢陽五百年歌의 壬辰倭亂敘述部 初頭를 비교해 보면, ㄴ), ㄷ), ㄹ), ㅁ)의 虛構的 性格이 ㄱ)에서 去勢되고 있음을 알아 차릴 수 있다. 壬辰錄의 異本중에는 倭軍의 侵入을敘述하는 부분이 三百名씩 수자리 살려 나오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어, 捕虜로 잡혀간 우리 나라 사람들을 救出하여 나오다가 倭國에 鄉愁를 가진 자들을 따로 뽑아 바다에 버리는 이야기가 계속된다.<sup>33)</sup> 이 뒷 이야기는 漢陽五百年歌에 移入된 壬

28) 大明崇禎壬辰秋七月十五日夜 宣祖大王夢中有將軍杖劍被甲自南而來扣門大呼 曰王宿耶未耶曰阿誰也對曰漢中關靈長也明日君之國內有大患也…(高大本：漢文筆寫，壬辰錄 1面)

29) 檜寧微本：國文筆寫，임진록 첫장。

30) 金根洙編：小說資料集成(1962)，속동일지 단 첫장。

31) 李明善校正：한글본 黑龍錄，國際文化館，1948，p. 9.

32) 京板本 壬辰錄이 그 代表적인 것이다.

33)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辰錄의 借用部分의 末尾部分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외에도 金根洙編의 複用일기에는 泗溟堂이 倭王의 降服을 받아 온 이야기 뒤에 倭敵이 다시 侵入하다가 하늘의 造化로 大敗하여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온다.<sup>34)</sup> 이러한 叙事的 擴張은 小說이기에 可能하다. 이런 擴張은 漢陽五百年歌에서 收縮되어 버리는데, 그 까닭은 앞서 說明한 바와 같다.

요컨대, 壬辰錄이 漢陽五百年歌에 借用되면서 形態의으로는 散文에서 律文으로 바뀌어 漱陽五百年歌의 作品構造에 外形의으로 連接되었으나, 叙述 性格이 相異한 앞뒤 부분의 構造的 壓力에 初頭部分과 末尾部分이 溶解되어 連接하게 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로 漱陽五百年歌에서 매우 큰 量的 比重을 차지하게 된 壬辰倭亂 叙述部分이 散文形態의 壬辰錄보다 더 잘 記憶되어지고 壬辰錄의 虛構的 內容을 真實된 歷史的 事實로 받아 들여지게 하는 效果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效果로 歷史 克服의 새로운 應戰力を 샘솟게 하는 感動의 源泉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 6. 結　　言

本考는 漱陽五百年歌와 壬辰錄의 相互關係를 살핀으로써 衝擊的 歷史體驗이 어떻게 文學作品化되며, 그것이 傳承되어 擴大 再現되는 現象을 解明해 보고자 하는 努力의 所產이다.

---

수명당이 동니을 바라고 오다가 괴로인더러 월니의 중일본성자이 잊서 가기로 훈벽 성은 다른 베이 오르라 훈니 일본원 훈는 지 터반이라 수명당이 니령의 무상이 여겨 그 벽성 오른 베를 물에 풀고… (金東旭編 :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二, 延大出版部, 1973, 京板 壬辰錄 p. 483).

34) 이 부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引用한다.  
잇싸 왜적의 진친 곳마다 밤을 지나면 군거를 빙이게 되여 쓰지 못하게 되니 이거는 무삼 낸고뇨 도시 훈날의 조화라 밤이면 난데움난 쥐가 모여들 이 화산에 것도 깊와 노으며 환시위도 써려 노으며 충구명에도 물이 가득 허야 탄환을 다 저시니 이거시 웃지 조화옹의 변화가 아니리오 일로뜻차 왜적이 터피 훈여 성환고국 훈난 스 사람이 업난지라. (金根洙編 ; 앞의 책, pp. 115-116.)

壬辰倭亂의 歷史的 事實을 虛構的으로 再編한 壬辰錄은 外侵에 대한 民族的 應戰意識과 抵抗意志를 文學作品으로 形象化한 것이라는 점을 살펴 보았다. 더 나아가서 壬辰倭亂을 惹起하여 우리 民族에게 잊을 수 없는 被侵의 衝擊을 던진 侵略의 主體가 다시 우리 民族에게 亡國의 悲運을 體驗하도록 強要하는 現實 앞에 漢陽五百年歌의 作家는 作品 속에 壬辰錄을 借用하여 當代的 歷史 狀況을 歷史 回顧를 통하여 想像的으로 克服하고자 했다는 점도 알아 보았다. 具體的인 檢證을 하기 위해 漢陽五百年歌에서 壬辰倭亂을 叙述하는 量의 比重과 亡國을 叙述하는 量의 比重이 作品 全體에서 크게 偏重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注目하였고, 두 부분의 叙述 性格이 서로 相異함도 눈여겨 보았다. 뿐만 아니라 借用한 壬辰錄이 漢陽五百年歌의 律文形態에 移入되면서 어떻게 作品構造 속에 連接되는가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說明을 끌어 낼 수 있었다.

1) 漢陽五百年歌에 壬辰錄이 借用됨으로써 叙述量의 比例의 均衡이 깨어지고, 作家의 一貫된 叙述態度와 合理的이고 客觀的 觀點을 흐트리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이것은 作家가 當代 現實에 激發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2) 散文 叙事形態의 壬辰錄이 律文 叙事形態의 漢陽五百年歌의 作品構造속에 이끌려 律文化되었고, 그 결과 散文 形態의 壬辰錄보다 더 잘傳播되고 暗誦되게 되었다.

3) 이에 따라, 漱陽五百年歌에 移入된 壬辰錄의 借用 部分은 漱陽五百年歌全體의 叙述性格의 影響아래 初頭部分과 末尾部分이 溶解되어 作品構造에 連接된다. 移入된 壬辰錄의 獨自的 性格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虛構的 壬辰錄의 內容은 漱陽五百年歌 全體의 歷史記錄物의 性格을 덧입고 實質된 史實로 認識되어 진다.

4) 亡國을 叙述하는 部분에 露現된 作家의 痛恨은 借用된 壬辰錄을 통해 解消되면서, 否認될 수 없는 現實은 歷史의 「發展的」展開에 따라

克服될 수 있으리라는 期待感과 이를 뒷받침하는 民族的 自尊・自信의  
恢復으로 昇華된다 할 것이다.

5) 결국, 이러한 說明은 다음과 같은 原理를 抽出한다.

경우 분석	歷史體驗의 事實	歷史的 事實의 虛構的 再論	歷史的 事實과 事實의 虛構的 再現의 複合
現象	壬辰倭亂의 歷史的 體 驗과 衝擊	壬亂의 歷史的 事實의 虛構的 再編化	虛構化와 歷史的 事實 과 當代的 現實이 相互 照明됨
具現物	實錄등의 歷史 記錄物	壬辰錄등의 虛構的 歷 史敘事物	漢陽五百年歌등의 歷史 記錄과 虛構的 歷史敘 事物의 複合物
本質	歷史性의 追求 想像力의 排除	歷史性의 弱化 想像力의 強化	歷史性과 想像力의 相 互作用
機能	客觀的 歷史 認識 實在로서의 歷史와의 對面	主觀的 歷史體驗 當為로서의 歷史形成 追求	客觀的 歷史認識으로 는 損傷될 수 밖에 없 는 歷史克服力を 想像 力에 힘입어 恢復시킴

이상과 같은 論議에서 壬辰錄과 漢陽五百年歌의 關係와 그 意味를 살  
살이 밝혔다고 볼 수 없다. 壬辰錄의 異本과 漢陽五百年歌의 各 異本  
간의 細密한 比較로 더 좋은 實證的 作業成果를 기대할 수 있는 바, 이  
는 後考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 參 考 文 獻

### 1) 資料

- 高大本：漢文筆寫 壬辰錄
- 機寧徵本：國文筆寫 임진록, 韓國語文學會編, 古代小說選, 螢雪出版  
社, 1970.
- 金根洙編：國文筆寫 朝鮮日記, 小說資料集成(油印本), 1962.
- 金東旭本：國文筆寫 壬辰錄

- 金東旭本 : 漢文筆寫 壬辰倭亂錄
  - 金東旭編 : 京板 壬辰錄,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延大出版部, 1973.
  - 朴晟義校正 : 農家月令歌, 漢陽歌, 民衆書館, 1974.
  - 世昌書館本 : 漢陽五百年歌
  - 李明善校正 : 壬辰錄, 國際文化館, 1948.
  - 韓南禮本 : 國漢文筆寫 한양가수
- 2) 論文 및 著書
- 金東旭 : 庶民文學의 撞頭,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14, 텁구당, 1975〉.
  - 蘇在英 : 「壬辰錄」研究, 崇田語文學, 1972.
  - 蘇在英 : 「壬辰錄」論巧, 檀國大 國文學論集, 5, 6合輯, 1972.
  - 林哲鎬 : 「壬辰錄」群 研究, 延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趙東一 : 壬辰錄에 나타난 金德齡, 常山 李在秀博士還曆紀念論文集, 1972.
  - 崔康賢 : 漢陽歌 研究, 高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 Avrom Fleishman: The English Historical Novel,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 E.H. Carr: What is History?, Penguin Books, 1968.
  - Georg Lukács: The Historical Novel, Penguin Books, 1976.
  - G.W.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III, Suhrkamp Verlag, 1970.
  - J.V. Cunningham: Tradition and Poetic Structure, University of Denver Press, 1960.
  - Jan Vansina: Oral Tradition, Penguin Books, 1965.